
ASSA 2026 Philadelphia

출장보고서

2026. 02. 02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1 출장 배경 및 목적

- (출장 배경) 출장자의 연구논문 “Investing in Health during Good and Bad Times: An Application to the China Shock”이 완성 단계에 이르러, 학술적 피드백을 통해 논문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출장 목적) 논문의 유관 분야인 국제무역 및 거시경제 최신 연구 동향 파악 및 해당 분야 연구자들과 교류

2 출장 개요

- 출장지 및 기간
 - 출장지: 美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
 - 출장기간: 01/02 (금) ~ 01/07 (수) (한국시각)
- 출장자 (총 1명)

소속	성명	직위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김 선 합	부연구위원

- 주요활동
 - 학술대회 논문 발표와 거시경제·국제무역·공간경제 최신 연구 주제 등을 습득

3 출장 일정

일자	주요일정(안)
01/02 (금)	[출국] 인천 → 보스턴 → 필라델피아 (KE 91, AA 403) 필라델피아 입국 후 근처 숙소 체크인

01/03 (토)	[08:00 ~ 10:00] Geoeconomics, Trade and Industrial Policy 참석 [10:30 ~ 12:00] The Dollar after the Tariff War 참석 [14:30 ~ 16:30] Urban Economics 참석
01/04 (일)	[08:00 ~ 10:00] Industrial Policy 참석 [10:30 ~ 12:00] Advances in Spatial Economics 참석 [14:30 ~ 16:30] Global Shocks, Capital Flows, and Macroeconomic Adjustment에서 발표
01/05 월	[08:00 ~ 10:00] Multistage Production under Trade Policy 참석 [10:30 ~ 12:00] Trade Frictions, Policy, and Firm Dynamics in a Globalized Economy 참석 [14:30 ~ 16:30] Measuring Misallocation and Reallocation 참석
01/06 (화) ~ 01/07 (수)	[입국] 필라델피아 → 보스턴 → 인천 (B6360, KE 92)

4 활동 내용

- 국내외 학자들과 상호 의견 교환 및 연구 교류
 - Laura Alfaro (Harvard Business School)와 희토류 공급망과 기술변화 방향에 대한 연구 논의. 2010년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정책이 글로벌 제조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이며, 희토류는 첨단 제조업의 핵심 중간재로서 대체탄력성이 낮고, 공급이 비탄력적이며, 중국이 생산과 가공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 본 연구는 중국의 수출 제한이 의도하지 않게 해외 전방산업의 기술혁신을 촉발했음을 실증적으로 보임. 메커니즘을 설명학 위해 지향적 기술진보(directed

technological change)를 포함한 무역 일반균형 모형을 개발. 특히 데이터를 활용한 구조적 방법론으로 희토류와 노동 간 대체탄력성을 추정한 결과, 대부분의 산업에서 두 투입요소가 보완재임을 확인. 이 경우 희토류 가격 상승이 희토류 절약적 기술혁신을 유도하여, 헥서-올린 효과를 상쇄하고 오히려 희토류 집약적 산업이 확대될 수 있음을 제시

- 해당 연구는 우리나라와 같이 첨단 제조업 비중이 높고 핵심 중간재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사료됨. 특히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 산업에서 필수 소재(예: 희토류, 특정 화학물질)의 공급망 안정성 확보가 중요하지만, 동시에 공급 교란 시 이를 대체하거나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혁신 역량이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 핵심 요인임을 보여줌. 이는 중간재 산업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적 접근에 대한 필요성을 보여줌.

○ Oleg Itskhoki (Harvard University)의 무역 불균형 하의 최적 거시경제 관세에 대한 연구 논의. 본 연구는 기존의 최적관세 문헌이 무역수지 균형(balanced trade) 가정 하에서 교역조건(terms of trade) 조작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순대외자산 포지션·평가효과(valuation effects)·총 대외자산·부채 구조·편익수익률(convenience yield) 등을 최적관세 분석에 통합한 첫 연구임. Trade Possibilities Frontier (TPF)를 이용한 이론적 분석을 통해 무역정책이 재화시장의 교역조건뿐 아니라 자산시장의 평가효과를 통해 장기 무역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규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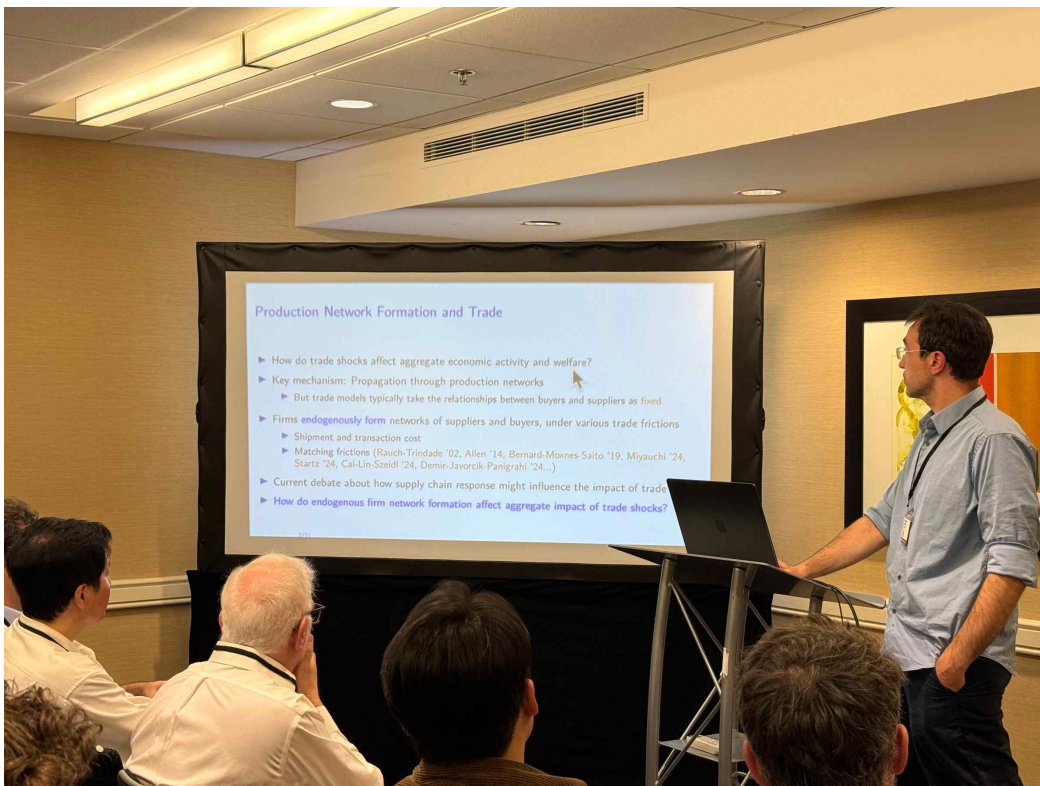
- 본 연구는 우리나라 경제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사료됨. 첫째, 주요 무역 상대국(미국, 중국)의 관세정책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 양자 무역수지보다는 우리

나라의 대외자산·부채 포지션 구조(특히 통화 표시 구성)와 해당 국가들의 총 대외금융 포지션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음. 둘째, 해당 논문에 의하면 미국의 대규모 달러 표시 부채가 미국의 최적 관세를 크게 낮추고 관세전쟁의 강도를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가 보유한 미국 국채 및 달러 자산이 관세 리스크에 대한 부분적 헤지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음. 셋째, 주요 무역국들 간 관세전쟁 발생 시, 각국이 우리 시장에 대해 갖는 수출 의존도가 우리나라를 겨냥한 관세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이므로, 특정 국가에 대한 우리 수출시장의 집중도를 다변화하는 것이 구조적 취약성을 낮추는 방안임.

- Costas Arkolakis (Yale)의 내생적 생산네트워크 형성과 무역후생에 대한 연구 논의. 다지역 일반균형 무역모형에서 기업들이 매칭 마찰(matching frictions) 하에 공급자-구매자 연결을 내생적으로 형성하는 환경을 분석. 모형은 생산네트워크의 중력구조(gravity structure)를 예측하며, 고정된 생산네트워크를 가정한 벤치마크 모형 대비 무역비용 감소로 인한 후생 효과를 분석적으로 도출. 칠레의 기업간 거래 데이터로 모형을 캘리브레이션하고, 미국-칠레, 중국-칠레 간 관세인하를 자연실험으로 활용한 이중차분법을 통해 무역충격이 국제 및 국내 생산네트워크를 재편함을 실증적으로 확인함. 수량분석 결과, 내생적 네트워크 형성이 무역으로부터의 후생이득을 상당히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비효율적으로 낮은 균형 네트워크 수준과 관계형성비용 (relationship-formation costs)을 통한 증폭효과 (amplification effect)에 기인함.

- 본 연구는 대미·대중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시사점이 큼. 특히 최근 공급망 재편 논

의를 고려할 때, 무역비용 증가가 국내 생산네트워크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저자의 모형은 무역충격이 단순히 교역량 변화에 그치지 않고 국내 기업간 연결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며, 이러한 네트워크 재편이 총체적 후생효과를 증폭시킴을 보임. 우리나라 역시 제조업 중심의 복잡한 생산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 대외 무역충격에 대한 정책적 대응 시 네트워크 효과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함. 또한 저자가 제시한 최적 보조금 공식은 생산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하는 산업정책 설계에 이론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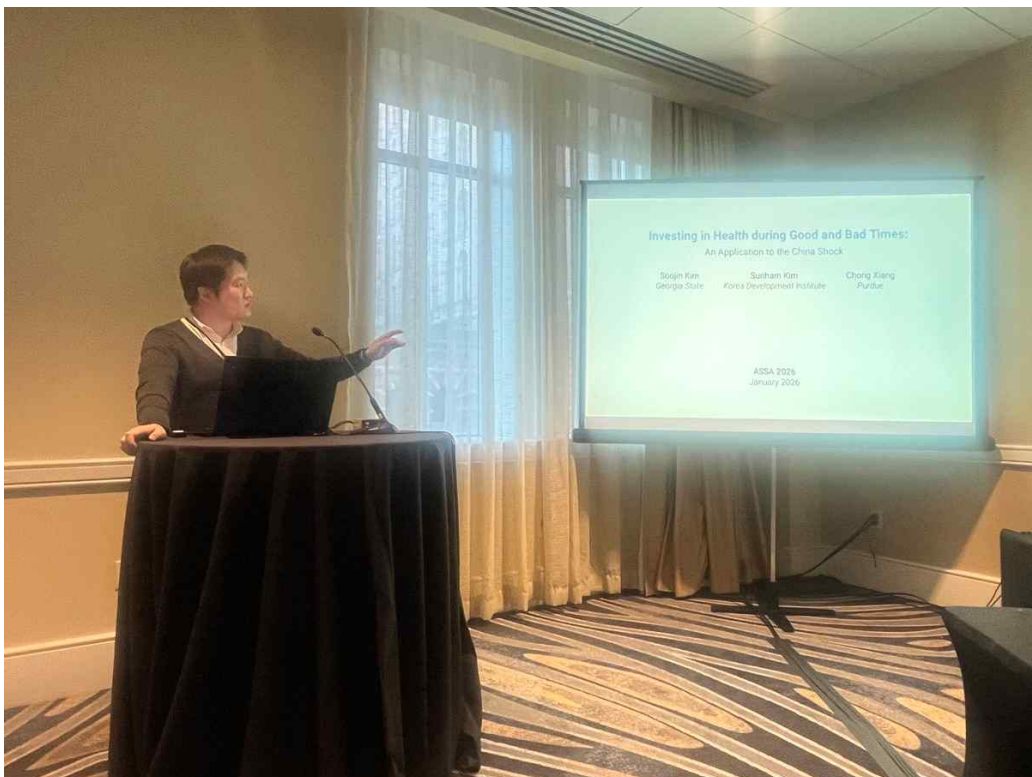
논문 “Production Network Formation, Trade, and Welfare”을 발표하는 Costas Arkolakis

□ 발표 논문에 대해 연구 발전방안 논의

- 기존 연구에서 무역충격에 따른 미국 제조업 일자리 감소에 따른 직접효과에 주목함. 본 연구에서는 일자리 감소로

인해 노동자들이 소득과 의료보험을 함께 상실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내생적 건강변화(endogenous health transition)을 고려한 모형을 사용하여 무역충격의 후생효과에 노동자 건강 악화와 그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보임. 세션 floor에서는 주로 건강충격에 대한 의료지출과 비의료지출을 구분하는 식별전략에 대한 제안이 이루어짐

- 본 연구가 국제무역과 거시-건강 문헌을 연결하고 있는 바, 국제무역의 일반균형효과, 특히 소비력 증대가 건강 관련 지출에 미치는 영향 역시 보다 자세히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Daisoon Kim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와 논의
- 모형의 노동자들이 건강에 대한 내생적 선택을 하는 데 반해 노동공급 및 보험의 경우 외생적이라는 점이 한계점으로 지적되었음. 특히 노동시장 참여가 외생적이라는 것은 모형의 함의를 불분명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있었음 (Minchul Yum, 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



논문 <Investing in Health During Good and Bad Times: An Application to the China Shock>을 발표 중인 출장자